장성군 축령산 '자연휴양림' 지정 추진

국내 최대 규모 인공 조림 편백숲 사전 입지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31ha 대상…각종 개발사업 속도

장성군이 최근 축령산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와 사전 입지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장성군이 국내 최대 규모의 '축령산 편백숲'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산림청이 축령산 자연휴양림 지정을 승인하면 장성군은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휴양림 조성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장성군은 이를 위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축령산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사전 입지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축령산 편백숲은 조림왕 임종국 선생(1915~1987)이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 인공 조림지다.

편백나무, 삼나무 등 상록수로 이뤄진 1150ha 규모의 방대한 숲은 방문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산림청도 압도적인 규모와 고유의 가치를 인정해 '22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장성군이 산림청에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추진하는 지역은 서삼면 모암리 군유지 31ha(9만3775평)이다.

지정되면 하나의 지구로 묶임에 따라 치유의 숲 개발 등 사업 추진 시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특히 각종 공모·지원사업을 일원화해 신청할 수 있어서 향후 관광자원 개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장성군이 추진하는 타당성 평가·사전 입지 조사 용역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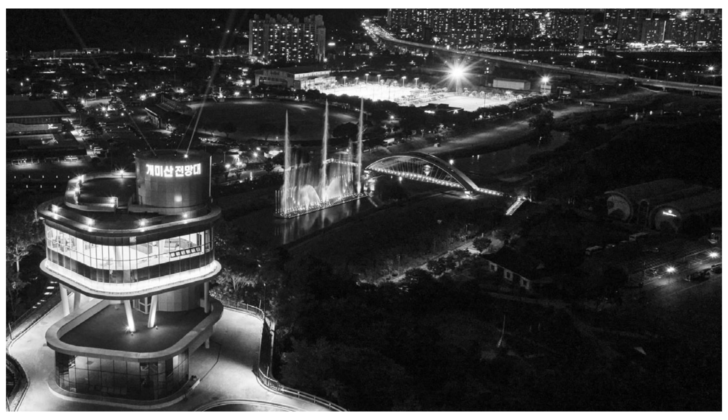
최근 열린 착수보고회에선 휴양림 편입 필지의 '수종·수목 분포', '산림 기능도', '생태 자연도' 등 산림 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또 동식물, 기상, 지형 등 자연환경 현황조사 계획과 자연휴양림 지정·승인 절차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장성의 자랑인 축령산 편백숲이 명품 자연휴양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타지역 우수사례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고 전문가와 지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군 새 야경 명소 개미산 전망대 준공



화순군 민선 8기 2주년을 기념해 준공한 '개미산 전망대' 너머로 화순천 꽃강길 음악분수가 화려한 조명을 밝히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의 새로운 야경 명소로 떠오를 '개미산 전망대'가 지난 28일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화순군은 이날 민선 8기 주년을 맞아 '개미산 전망대 준공식'을 열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개미산 전망대는 화순읍 하니움 스포츠센터에 인접했다. 4층 높이에서 화순천을 바라보면서 꽃강길 음악분수를 감상할 수 있다. 3층에는 커피 전문점을 갖췄다.

화순군은 총사업비 93억원의 투입해 지난해 7월 착공한 뒤 12개월간 공사를 거쳐 전망대, 진입도로 등 개미산 전망대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날 준공식에서 화순군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을 기념했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화순 백신산업특구 일원에 약 241만3223㎡(73만평) 규모로 1조2000억원의 투자를 이끌고, 1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구복규 화순군수와 신정훈 국회의원,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도의원, 홍이식 전 군수와 주민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군민 화합과 열린 군정, 섬김 행정, 문화 화순, 경제 화순을 약속했다"며 "전국적 관심을 부른 만원 임대주택과 화순천 꽃강길 음악분수, 화순고인돌축제, 개미산 전망대에 이어 100년 뒤 화순에서 살고 있을 후손들을 위해 앞으로도 더 좋은 시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함평군·빛그린산단 경영자 협의회 산단 활성화 방안 등 논의 간담회

이상익 함평군수와 빛그린국가산단 경영자 협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단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빛그린국가산단 경영자 협의회는 최근 이상익 함평군수를 초청해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산함평사무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빛그린산단은 함평군 월야면과 광주시 광산구 일대에 약 406만6115㎡(123만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현재 2단계 함평구역에 기반 시설 공사를 추진해 올해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군수와 양오열 빛그린국가산단 경영자 협의회 회장, 황상현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본부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함평군의 기업지원정책과 사업을 소개받고, 함평군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또 산단 활성화와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 사업을 설명했다. 빛그린국가산단 경영자 협의회는 올해 2월15일 창립한 입주기업 협의체이다.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상호 협력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빛그린국가산단 경영자 협의회의 초청을 계기로 빛그린국가산단의 활성화에 대해 더욱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나주시 관계자가 '시장인증 품질보증제' 배 농가를 찾아 관리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배 '시장인증 품질보증제' 농가 육성

농가 20곳 찾아 기술지원

나주시가 '시장인증 품질보증제' 배 재배 농가 20곳을 직접 찾아가 기술지원을 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나주시는 국내 육성 품종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현장 기술을 지원한다. 이번 교육은 고품질의 배를 생산해 나주 배 명성을 회복하고자 마련했다.

교육 대상 농가는 '시장인증 품질보증제'를 통과한 농가들이다.

1차 현장 기술 지원 컨설팅은 최근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관에서 이뤄졌다.

배 재배 전문가 2명은 교육생들에게 과원 관리 방법과 주 재배 품종인 '신화' '창조'의 재배 특성 등을 설명했다. 토양과 물 관리, 수확 후 관리 방법 등도 소개했다. 강사와 교육생들은 품종에 맞는 기술을 정립하기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비법을 공유했다.

나주시는 올해 하반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 연구센터와 시장인증 품질보증제 20개 농가를 직접 찾아가 2~3차 현장 기술 지원을 벌일 방침이다. 재배부터 수확, 관리까지 농장 환경에 맞는 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강진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사업 삼시세끼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행사 후 강진향교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탐방 '삼시세끼 힐링향교' 인기

충남지역 30명 1박2일 진행

강진문화원은 최근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 '삼시세끼 힐링향교'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충남 금산에서 참가자를 모집해 초등학생, 중학생, 일반인 등 30명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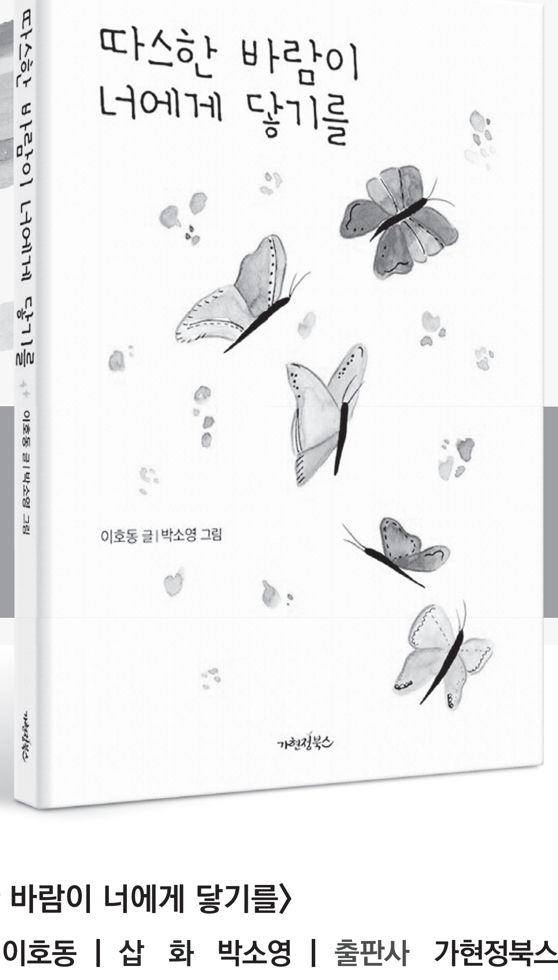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첫째 날은 강진향교와 강진아트홀 야외공연장에서 '청자 체험', '다식 만들기', '우리 가락 어절씨구', '지구는 지금 나의 힘이 필요해요', '농심줄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둘째 날은 다산초당에서 백련사까지 다산과 혜장스님이 거닌 '사색의 길'을 걸으며, 다산선생이 남긴 발자취와 정신적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백련사, 백운동원림 등을 둘러본 후 한국 전통 원림의 가치와 강진의 차 문화에 대한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이 이어졌다. 또 월출산 자락 숲에서 무형문화유산 이수자인 김다은 씨의 '호남가', '사랑가' 등 가야금병창 연주를 감상했다. 이후 이번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난 참가자들은 우리 가락에 맞춰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삼시세끼 힐링 향교'는 참가자 모집후 1박 2일로 진행되며, 강진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시서예악(詩書禮樂)에 관한 선택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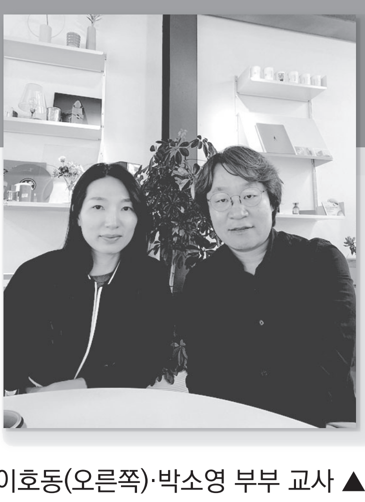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여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